

월간

# 충현

12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12월 7일 발행  
통권 제24호

##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

=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

모든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요셉도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

때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舍館)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의 일이었다.

근처에서 양배를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많은 천군천사들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었다. 「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속죄해 주시려 오신 예수님

성경/마 20:28

1970여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의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읍니다——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완전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본래의 형상을 낙원과 함께 상실해버리고 그후에도 계속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체가 되었고(창 6:1)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더 참으실 수가 없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범죄하며 타락해서 하나님을 노여움게 함으로 하나님은 또 경중을 울려주며 징계하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악했던지 「악하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와 악의 화신이 되어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게 되었습니다(롬 3:10).

이런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한 사람이 오셨읍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 더러워지고 냄새나며 킁킁한데, 이분만은 깨끗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람 가운데 참 사람이요, 완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그분은 아름답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사람이요, 만인(萬人)위에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수만 군중이 배고픔도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도 사람들이 그분 앞에 일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기도 하였읍니다.

죄인을 섬기려 오셨읍니다——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존귀·경배·찬양·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그런 체 안하시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남을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김 종 택

<본교회 부목사>

1975년 교회 주요 일지

|        |                      |         |                        |
|--------|----------------------|---------|------------------------|
| 1월 3일  | 신년 단기수련회(9일간)        | 10월     | 제4회 농어촌교회평신도지도자훈련(5일간) |
| 5일     | 공동체교회·영아부 첫예배        | 28일     | 1부 여름성경학교(4일간)         |
| 19일    | 제1회 선교주일             | 29일     | 2부 하기수양회(10일간)         |
| 20일    | 1부 겨울어린이성경학교(4일간)    | 8월 11일  | 농어촌전도대 과송(10개처)        |
| 2월 10일 | 성경학원 개강              | 9월 7일   | 추석성묘 합동예배              |
| 26일    | 2부 동기수양회(3일간)        | 20일     | 추계대심방 시작               |
| 3월 11일 | 춘계대심방 시작             | 21일     | 대학부 2부예배 실시            |
| 21일    | 춘계성례식 거행             | 25일     | 성가부 수양회(3일간)           |
| 30일    | 부활절·특별집회 실시          | 10월 9일  | 제1회 충현교회친교대회           |
| 4월 13일 | 권사회 창립총회             | 17일     | 추계성례식 거행               |
| 5월 20일 | 당회장 동남아 선교지 순회차 출국   | 24일     | 홍중섭 장로취임, 한경일·김종석 장로장립 |
| 24일    | 제10회 경노회잔치           | 28일     | 남전도회·청년부 심령부흥회(4일간)    |
| 25일    | 장로투표 실시              | 29일     | 당회장 대만·일본 부흥회 인도차 출국   |
| 6월 16일 | 제1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5일간) | 11월 23일 | 추수감사절                  |
| 23일    | 전교인 특별심령부흥회(3일간)     | 12월 7일  | 1976년도 새임직원 임명         |
| 7월 3일  | 맥추감사절·총동원전도 실시       | 25일     | 성탄절 축하예배               |
|        |                      | 27일     | 주교 전체교사회 총회            |
|        |                      | 30일     | 특별제직회 총회               |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댓가를 받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막 5:26).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냥 고쳐주시고 또 불치의 병도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댓가를 받으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봉사하시고 섬겨주셨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아시면서도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살을 뜯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짜서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 사셨고, 일하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속죄의 사역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여기의 「속죄」라는 것은 ① 시장에서 사낸다(갈 3:13/속량), ② 속박에서 자유케 한다(딤후 2:14/불법에서 구속함), ③ 값을 주고 산다(엡 1:7; 롬 8:23)는 등의 뜻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결박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전 6:19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간혹 남을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감격케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아무래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 10:10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중에 올해도 평온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참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한 이웃과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며,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목자들처럼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 \*\*\*\*\* 12월의 행사 \*\*\*\*\*

- 7/ 1976년도 새 임직원 임명·경거제지회  
재정위원회·성경학원 이사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 14/ 남전도회 총회·권사회 총회
- 21/ 교육위원회·재정위원회·여전도회 총회
- 17, 21, 24, 25/성탄 축하음악예배 (오후 7시)
- 25/ 성탄 축하예배
- 27/ 주일학교 전체 교사총회
- 28/ 구역권찰회·교육연구위원회
- 30/ 특별 제직회 총회

\*\*\*\*\*

## 차 례

|                                          |    |
|------------------------------------------|----|
| 〈성탄 메시지〉 속죄해 주시려 오신 예수님<br>/김종택 목사.....2 |    |
| * 특집/1975년의 전도·교육·봉사활동                   |    |
| I. 국내외 전도/오태용 .....                      | 4  |
| II. 주일학교/정은표 .....                       | 6  |
| III. 구역권찰회/이형수 .....                     | 8  |
| IV. 성탄동화/큰 선물 박종구 .....                  | 10 |
| 〈기관소개③〉 주일학교—고등부 .....                   | 12 |
| 〈에스겔서 연구④〉 하나님의 종 에스겔/윤영탁 .....          | 13 |
| 〈컬럼〉 결대 전설/이형수 .....                     | 9  |
| 〈교회뉴스〉 .....                             | 14 |
| 〈1975년 교회 주요일지〉 .....                    | 2  |

## 남녀 전도회·성경학원을 중심으로

-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 ◇.....종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역시 남녀 전도회이다. 1975년도.....◇
- ◇.....국내 전도 사업의 성파는 먼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의 그것을 살.....◇
- ◇.....떠 보고 이어 놓여온 전도 사업에 대한 성파를 검토하고 기타 노.....◇
- ◇.....방전도, 전도지 배부 현황 등을 알아보려 한다. ....◇

### □ 남 전 도 회

창립 초부터 남전도회의 중심 사업이 되어 온 것은 개척교회의 지원이었다. 금년에는 기존의 낙원교회와 장락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이중 낙원교회가 금년 말로 지원이 종결되게 되어 있어 남전도회는 금년에 새로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금원교회를 개척하여 11월 3일에 교회당 건축 기공식을 하고 12월중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건평이 25평에 예산은 150만원이 소요된다.

다음 노방전도 사업으로는 월 1회씩 명동을 비롯 서울시 일원에 노방전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일 노방전도인으로 장봉순 집사를 택해 상반기에는 월 1만매 정도의 전도지를 배포해 왔는데 이의 실적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 밖에도 침치일 집사, 신영근 집사 등이 노방전도에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다.

특수 전도에 있어서는 10월에 중부 경찰서로 유치장 전도를 나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고 강순을 집사로 중심으로 직장 전도를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개교회 전도와 병원 전도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이단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9일에 탁명한 선생을 모시고 「사이비 종교 비판」(여호와 증인과 통일교)을 가졌으며 4월 19일에는 장락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전도를 실시하였다. 청년부와 합동으로 10월 28일부터 「민음의 재검토」라는 주제의 심령부흥회를 가졌으며 11월에는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창립총회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12월 초에는 회지 「아가페」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을 기해서는 회원간의 협조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회원의 직업·직장 안내를 기획하고 있다. 회원들의 참여도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차기에는 금전으로 지원하는 일변도를 떠나서 회원 각자가 돈을 내고 직접 전도의 일선에 뛰어들어 개개인이 맨투맨식으로 실질적인 전도사업을 펴보아야겠다는 의견이 높아 가고 또 공장이나 직장을 택해 교양강좌도 실시하며 전도하는 산업선교도 모색하려 한다고 한다.

### □ 여 전 도 회

여전도회는 역시 개척교회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세 곳을 택했는데 안양에 천지교회(박준보 전도사), 공업단지에서 성광교회(김창영 목사), 그리고 개봉동에 성현교회(이종영 목사)를 개척 지원하였다. 특히 성현교회는 여전도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이나 교회 건

물 사용료 150만원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중부시립 병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또 여전도회는 대군(對軍)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통일촌교회 목사 사택 건축비로 50만원을 보조하였고 여호수아교회(정판주 목사)에 의자 만드는데 1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8008부대에 개인적으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보내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전군 신자화를 위해 계속 군인교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여전도회의 바람이다.

### □ 성 경 학 원

한편 성경학원에서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을 금년부터 교역자 훈련과 평신도 훈련으로 구분, 제 1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을 6월 16일~20일에, 제 4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 훈련을 7월 10일~14일까지 44개 교회 82명이 참가했다.

이어 8월에는 11일부터 1주일 동안 제 4회 하기 농어촌 전도대를 총 10대 62명으로 편성 파송했다.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 파송된 각 전도대는 한 영혼도 소홀히 함이 없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1,457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으며 그 후에 청년부에서는 대상 교회 중 하나였던 충남 서천의 송산교회에 교회 신축 보조비로 4만 5천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 □ 기 타

이 외에도 본 교회는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모든 성도가 만나는 주변 인사에게 수시로 전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안드레회」라는 것을 조직 운영해 왔다. 5월과 7월의 총동원 전도시에는 3, 4백명의 성도들이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전도를 실시하였다. 6월부터 조직, 운영되는 「안드레회」는 현재 36개 구역에서 150여명이 안드레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이 수시로 전도하는 수시 개인전도에서는 금년에 217명을 결신시켜 그 중 다수의 사람들을 새신자부에 등록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활발히 전도하는 분은 86세의 공로장로이신 강지순 장로님이다.

전도지 배부 현황을 살펴 보면 금년에 구입한 전도지가 총 2,151,100매에 이르고 있는데 1주일에 평균 2만장씩을 배부하여 현재까지 약 210만장을 배부하고 축복음은 약 3만부를 구입하여 농어촌 전도대 파송시 배부하였다. 이처럼 금년에 우리 교회는 전도에 관한 한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하고자 전지하게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오태웅〉

## 해외복음선교회를 중심으로

1968년에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직된 「해외복음선교회」는 동남아 선교의 거점으로 70년 9월에 인도네시아를 선교지로 확정, 서만수 목사를 파송 선교사로 하여 약 6개월간의 훈련 끝에 1971년 9월 9일 임지로 파송하였다.

그 이후 단 4년 이상을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은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펴고 동시 한국인 교포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한편 본 교회에서는 「해외복음선교회」를 주축으로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유감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을 기점으로 「해외복음선교회」는 획기적인 선교사업계획을 계획, 진행시켜 왔다. 이제 금년도 선교회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를 하나씩 살펴 봄으로써 내년도의 사업에 연관을 지으려 한다.

무엇보다도 금년도 「해외복음선교회」의 주요 업적은 온 교회에 일대 선교 붐을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먼저 선교주일 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해외복음선교회」는 선교사업의 중요성을 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고 시대적인 선교사명까지도 자각할 수 있도록 1월 새해 주일을 「선교 주일」로 제정, 온 교회가 그에 맞는 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모든 예배 및 집회에서 메시지를 선교에 관한 것으로 하게 하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쇄된 책꽂이를 3천여 개량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선교 헌신 작성서를 전 교인에게 배부하여 선교회원으로서의 입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일학교 각 연령회에 선교부를 조직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선교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유년부에서부터 일반 장년에 이르기까지 약 1,300여명의 선교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애당초 선교 회원의 저변 인구 확대를 꾀하여 1,500명을 목표로 한 것에 87%의 달성을 보이는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매달 일정액의 선교회비를 납부하여(10월 26일 현재 수입금 6,273,860원) 후방에서나마 물질로 선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들 회원들에게는 「해외복음선교」 뱃지를 증정하였다.

한편 「해외복음선교회」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 및 해외 파송 선교사와의 연·관계를 전담하는 동시 선교사 양성, 선교사업 지원, 선교학 연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거나 선교 사업에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선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선교적 사명을 띠고 외국에 나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땅 끝까지회」라는 것이 1월 16일에 조직되었다.

12명의 회원을 가진 이 「땅 끝까지회」는 「해외복음선교회」의 전위부대로서 그동안 매주일 저녁 예배 전 30분씩을 기도모임으로 가졌고 수차례 찬양 기도회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9일 본 교회 제 1회 종합 친교대회

때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건립 중인 선교관 건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집」을 개관 운영해서 순 이익금 72,584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 붐 조성을 위한 선교 부흥회, 선교 청년대회, 선교 발표회 등은 여건이 허락치 않아 실시를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해외복음선교회」의 금년 목표는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기왕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에 대한 철저한 후방 지원이었다. 그래서 「해외복음선교회」는 동남아에서 한국의 해외 선교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선교관 건립 대지를 지난 4월에 575m<sup>2</sup> 확보하고 이어 최초의 선교관 건립에 착수하였다. 이 선교관은 건평 400m<sup>2</sup>에 공사비 약 3만불을 들여 6월 19일에 기공식을 가진 다음 5개월 후인 지난 10월 9일 건축중인 선교관에 일단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것의 건축에 따른 문제로는 공사비 3만불 중 1만불만 지불되고 나머지 2만불은 송금 허가를 받지 못해 미불 상태에 있고 아울러 대금 때문에 신축된 선교관에 전화 가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한편 서만수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수마트라 등 인도네시아 전역을 순회 집회하는 일과 「현대건설」 등 한인 교민들 중 교인들을 심방하는 일, 신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일 등 약 조건하에서도 분명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어 성경을 한국에서 인쇄하여 정글교회에다 배포하였다.

지난 5월 20일에는 총회 선교부장이지기도 한 당회장에서 선교지 시찰 길에 인도네시아에 들르시어 각지에 순회 부흥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일본 선교이다. 애당초 계획은 3월경에 홍종만 목사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외무성에서 비자 발급이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 출국을 못하고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에 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선교회에 못지 않게 대일본 선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서만수 선교사 안식년에 대비해서 선교사 후보의 선정 훈련이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1975년은 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밖에 감당할 곳이 없는 이 선교사업이 연차적으로 확장되어 선교사로 가고 또 보내는 역사가 충현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

〈오태용〉

## 불가피한 부문별 전문화

- ◇……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우리교회에서는 주일학……◇  
 ◇……교가 필요 없다는 여론이 나올만큼의 무관심과 지도자 부재라는 초기의 일시적인 어려……◇  
 ◇……움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더욱이 교회 설립 10 주년을 맞는 1963년부터……◇  
 ◇……「천국일꾼 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다져진 주일학교에 대한 교회의 열의는 최근 수년간……◇  
 ◇……에 이르러 학생수에 있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몰고 왔다. ……◇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듯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불확실한 대답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  
 ◇……게 만들었으며 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역작용의 결과는 진일보하는 결과를 또한 ……◇  
 ◇……날기도 했다. ……◇  
 ◇……그 두 가지 질문이란 바로 학생수의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양(量)……◇  
 ◇……에 대한 문제와 숫적인 증가에 비해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質)……◇  
 ◇……(質)에 대한 질문이다. ……◇  
 ◇……올해도 우리는 교육이라는 파장을 밟아 복음의 씨를 심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주일학교 교육의 결과를 질(質)과 양(量)면에서 수치적인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  
 ◇……었다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고 빠르겠지만 근거할만한 구체적인 데이터(Data)가 없어 그……◇  
 ◇……렇게 하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술적인 표현으로나마 올해도 두드러지……◇  
 ◇……게 들어났던 우리교회 주일학교의 몇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

주일학교의 10월 말 현재의 보고에 의하면 숫자상으로는 지난해에 비하여 학생출석수와 헌금액이 약 10% 정도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같은 숫적인 증가가 반드시 내적인 성장 정도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학생과 교사가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장소와 시간이 현재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질과 양이 동시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만약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이요 또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교회의 입장을 보면 장소가 너무 좁아서 양이 늘어날수록 질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 2,200여명의 학생과 320여명의 교사가 함께 연 250명 남짓한 장소에서 예배, 분반공부, 각종 회의와 행사등을 실시해야만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아닐수 없다. 물론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시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 장소를 두번이상 사용할 수 없어 복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차제로 장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밀리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끝맺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와야 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교육에는 수업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는 개인지도와 그룹지도가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장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어

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으로는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분반공부 할 때면 다른반 학생과 몸이 서로 맞닿을 정도가 되고 어떤 부(部)는 예배장소와 분반공부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소모와 함께 공부 분위기가 깨지기도 한다. 또한 이 장소와 시간 문제는 교사회의에도 영향을 주어 교사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장소와 시간이 없어 의사전달이 잘 안되고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어 지도자들의 사력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받고 사는 우리로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각종 회의와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장소와 시간이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비장한 각오의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사력을 다하는 물질적인 헌신이 따르지 않는 한 암담하기만 한 장소와 시간 문제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는 정확무오한 성경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교사들을 양성하는 길만이 현상유지 내지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어느정도 효과 있는 교육을 바랄 수 있다면 좋은 교사를 모시고 있는 주일학교일 것이다.

교사자질 문제는 우리가 일상 구호처럼 내세우는 것이지만 교사 스스로가 자신들의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연마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려는 데에 항상 노력하지 않는 한 공수포에 불과하다. 물론 교회도 교사자질향상의 책임이 있기에 매년 연초에 「교사수련

회」를 비롯하여 각 부별 「자체 교사연수회」와 「교사준비공부」와 「연합회 교사강습회 파견」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양성부」의 운영과 「교사의 벗」이라는 교사를 위한 월간지 제공과 성경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서 마련한 이같은 모든 것의 내용이 교사의 자질향상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기회를 소중하게 알고 배우며 가르쳐야겠다는 정신을 모든 교사가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일부 지도자들 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온 「교사의 벗」을 교사들이 잘 읽지를 않아 걱정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교사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양성부에 가서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심지어는 공부하라는 것이 싫어 교사직을 사양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요청되는 교사충원을 위해 꼭 지도자양성부 출신만을 임명할 수 없어 임시 교사제를 두고 있다. 일반직업이라면 몰라도 천국일꾼을 키우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은 물론 좋은 제도나 훌륭한 교육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앞서 주일학교 부흥의 제일된 요건은 역시 좋은 교사일 것이다. 사설 저급과 같은 중한주일학교의 발전은 좋은 교사들이 많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거세게 불어올 세속의 바람을 거슬러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려면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이전보다 배나 더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믿음의 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시대조류를 따라 성경이 금하는 일을 이렇가 저렇가 망설이는 교사라면 벌써 그 사람은 주일학교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악조건하의 교육환경 속에서는 정황무오한 성경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교사들을 양성하는 길만이 현상유지 내지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우리교회는 작은 교회와 달리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 기술적인 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부문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범교회적인 주일학교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특수성 가운데 한가지는

#### ☞ 13 페이지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어 그곳에 영원히 계시게 되며 그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계시게 됨으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계시신다」는 뜻, 겔 48:35라고 부르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거하심으로 새 영광과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겔 36:26-2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성읍에서 영

학생이나 교사의 숫적인 규모에 있어 3,0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2,3백명 정도의 소규모적인 주일학교 운영에 적합한 단순한 운영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조직이나 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체대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할 처지이며 이러한 일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올해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성 목사의 말을 들어보았다.

「일년동안 교육위원회 책임을 맡아본 경험에 의해 교육위원회 운영면을 살펴보면 과거를 답습한 것뿐입니다. 처음 임직을 맡았을 때에는 위원장 한 사람이 주일학교 11부 전체를 다 통괄하기 힘들 것 같아 일의 성격별로 나뉘어진 분과활동을 강화시키어 일관성 있는 운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분과별로 운영세칙을 정하고 모든 보고와 청원은 양식에 의한 서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와 교육근거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해에 8개분과를 모두 다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선 시급한 행정분과·행사분과·인사분과를 중점적으로하여 활동하도록 하여보았읍니다. 그러나 생각했던것처럼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 한가지는 잔일 같으면서도 위원중에는 실질적인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협의체로서의 운영은 되었는데도 몰라도 관리체로서의 운영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가 11개부 전체를 관할하여 이끌어 나가려면 현재와 같은 실무자회의나 부장회의와 같은 성격에서 탈피하여 범교회적으로 조직되어 각 분과가 적당한 인물로 활동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2,000여만원의 예산집행과 300여전에 달하는 행사관리 그리고 각부별 교사관리 인사관리등을 하나로 묶어 체계있고 통일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천국일꾼을 키운다」는 목표를 향한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각부간의 마찰이나 수준의 기복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교육방향설정, 교과과정설정, 교사양성, 학생지도, 주교행정, 교육환경개선등에 있어 사회교육에 앞서는 전문적인 부문별연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를 한데 묶어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정은표>

원히 하나님과 동거하게 될 것이니 우리도 그 성읍을 「이스라엘 삼마」/「이스라엘이 그곳에 있다는 뜻」라고 불러보자.

#### 할렐루야!

\* 4회에 걸쳐 「에스겔서 연구」를 집필해 주신 윤영탁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자의 충분한 뜻을 지녀제한으로 다 전하지 못함을 아취위하여 앞으로 제은 책자의 형태로라도 좀더 자세히 설명된 「에스겔서 연구」가 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편집자>

# 남 모르는 수고의 결정체

— 16개 구역에서 72개 구역으로  
각구역에서 성경공부운동이 일어나야 —



〈구역권찰회 회장  
백성룡 목사〉

- ◇… 1955년 16개 구역으로 구역…◇
- ◇…권찰회가 조직된 이래 우리교…◇
- ◇…회의 성경계통의 역할을 담당…◇
- ◇…하여 교우들의 실정을 신속하…◇
- ◇…게 파악하여서 보고·처리할…◇
- ◇…뿐만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와…◇
- ◇…매개체가 되어 온 구역권찰회…◇
- ◇…가 이제는 72개구역으로 확대…◇
- ◇…교회와, 구역, 각교우간의 긴…◇
- ◇…밀한 매개체로서 그 어느누구도 모르는 헌신적인 열…◇
- ◇…성과 봉사로 수고하고 있다. …◇
- ◇… 이제 1975년을 마무리지으며 구역권찰회의 1년간…◇
- ◇…의 노고와 그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

구역권찰회가 조직된 1955년에 16개 구역에서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은 1964년에는 26개 구역으로, 15주년이 되는 1968년에는 49개 구역, 1971년에는 53개 구역을 동구, 중구, 서구의 3개 지역으로 나누었고 1973년에는 58개 구역을 동서남북의 4개 구역으로 구분, 75년 10월말 현재 72개 구역으로 확장된 구역권찰회의 가장 주된 임무는 매주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구역심방이다.

## 초기의 16개 구역에서 72개 구역으로

매구역마다 담당 장로 1인, 권사 1~2인, 구역장(남 집사) 1인, 권찰 2~5인으로 구성되어 구역담당 권사와 권찰을 중심으로 매주일 실시되는 구역심방은 교회와 교인 전부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역수가 증가하고 교회의 조직이 팽배해짐에 따라 정비해야 할 구역심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 구역심방을 통하여 성도간의 교제는 물론 성경공부의 장려, 새신자의 육성인도, 교회 지시사항,

광고 등의 전달, 교회정책의 실질적인 시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에도 총동원전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10월 9일 친교대회의 동원, 여름행사를 위한 모금등에서 구역권찰회의 중요성과 그 저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

## 매주 금요일 구역심방—산 교회의 증거

이처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실시되는 구역심방은 산 교회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주 지역의 구역별로 실시되는 구역예배는 금년은 매월 「충현」지에 게재된 구역공과를 통하여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구역예배를 못 드리는 구역의 구역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구역의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구역예배는 아마도 구역권찰회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구역예배를 통하여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경공부·연구, 새신자의 육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구역예배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편은 매주 각부별로 모이고 또 구역예배를 원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구역예배를 못 드리는 구역이 많다. 이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구역예배는 구역권찰회의 생명

구역예배는 구역권찰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통하여 본격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과 친교를 위한 모임들이 생겨나야 한다. 또한 구역권찰회의 특기할 만한 일은 구

〈표 1〉

지 역 별 현 황

75. 10. 31 현재

| 지<br>역 | 구<br>역<br>수 | 세<br>대<br>수 | 구역<br>장수 | 권<br>찰<br>수 | 교 인 현 황 |       |        |     |      |     |      |     |       |       | 총 계   |
|--------|-------------|-------------|----------|-------------|---------|-------|--------|-----|------|-----|------|-----|-------|-------|-------|
|        |             |             |          |             | 세례교인    |       | 유아세례교인 |     | 학습교인 |     | 원입교인 |     | 계     |       |       |
|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동      | 18          | 590         | 18       | 68          | 278     | 581   | 70     | 73  | 53   | 82  | 117  | 142 | 518   | 878   | 1,396 |
| 서      | 18          | 518         | 18       | 63          | 247     | 454   | 74     | 60  | 42   | 58  | 91   | 137 | 454   | 709   | 1,163 |
| 남      | 19          | 570         | 19       | 68          | 309     | 551   | 78     | 82  | 53   | 52  | 95   | 137 | 535   | 822   | 1,357 |
| 북      | 17          | 526         | 17       | 62          | 221     | 447   | 74     | 52  | 37   | 58  | 124  | 152 | 456   | 709   | 1,165 |
| 계      | 72          | 2,104       | 72       | 261         | 1,055   | 2,033 | 296    | 267 | 185  | 250 | 427  | 568 | 1,963 | 3,118 | 5,081 |

역 내의 슬픈 일이나 기쁜일을 당한 가정을 함께 슬퍼하여 주고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남전도회 증진 회원들이 7~8명씩 동원되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찾아가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준 일 등은 크게 본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역내의 큰일이 생긴 가정을 찾아 동참한다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면서도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 통 계 표

1975. 1. 1~10. 31

| 구분<br>월별 | 동 료<br>(세대) | 결 혼<br>(명) | 장 례<br>(명) |
|----------|-------------|------------|------------|
| 1        | 37          | 2          | 2          |
| 2        | 28          | 4          | 4          |
| 3        | 26          | 8          | 5          |
| 4        | .           | 9          | 2          |
| 5        | 35          | 3          | 4          |
| 6        | 42          | 2          | 5          |
| 7        | 29          | 1          | 7          |
| 8        | 39          | .          | 4          |
| 9        | 27          | 9          | 2          |
| 10       | 29          | 5          | 1          |
| 계        | 295         | 44         | 36         |

구역권찰회 친목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운동은 일반 교인에게까지도 일어나야 할 문제인 것이다.

#### 구역권찰 친목회—3개월에 1회

이처럼 교회의 실리적인 발이 되어 남이 알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수고를 하고 있는 구역권찰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위로회나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다.

#### 구역권찰을 위한 위로회 한번도 없이

구역권찰들은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도 몇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0여 세대를 훨씬 상회하고 현재의 교세에 권찰회의 활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과 교육과 훈련을 통한 활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73년도부터 연초에 권찰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충분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의 보완을 매월 정기권찰회시 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실시하지 못한 점, 구역행정을 담당하는 구역장들의 특별교육을 실시치 못하여 몇구역에서는 구역보고서를 제출치 못한 점, 구역·구역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를 도모치 못한 점들이 금년도 구역권찰회에 아쉬운 점이라고 1968년 이래 줄곧 구역권찰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백성룡 목사님의 말씀이었다.

구역은 교회의 하나의 세포로서 구역의 진정한 육성 발전은 교회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구역에 배, 심방, 구역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 구역에서 일어나는 성경공부운동, 상부상조의 정신,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 등이 이루어 질 때 남모르게 애쓰며 수고하는 각구역 권찰들은 심방하는 그 걸음수만큼이나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이형수>

## 1200 자 컬럼



이 형 수

월남과 크메르의 공산화 소식으로 신문이 은둔 시커먼 활자로 뒤덮였던 지난 봄, 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만 1단기사로 쓰여진 시인 김현승(金顯承)의 죽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그의 시귀처럼 「검어진 모국어」로 절대 고독의 순수세계를 양파껍질을 벗기듯 조용 조용히 벗겨내던 그도 어쩔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순수세계를 노래한 그는 그의 시 「절대 고독」에서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영원의 면모를 만지게 되었다/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비로소 나의 오랜 꿈을 켜다.……」며 그 절대 고독이 신적(神의)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따뜻한 나의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며 절대 고독의 견고한 고독속에서 느끼는 충족함과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 고독은 하나님 앞에 「절대 진실」할 수 있을 때에야만이 절대 고독의 충족함과 평안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무서운 고통일 수도 있고, 깊은 소외일 수도 있고, 냉정한 단결이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양심적」 「인간적」인 입장에서 진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대 진실」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진실을 무척 요구하고 있다. 아니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증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외우면서도 자신에게 이익됨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허다한 사례(事例)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진실이다.

그러므로 절대 진실이 결여된 교회에서의 모든 것처럼 희한한 저상 최대의 쇼(show)도 없을 것이다.

\*

# 큰 선물

박 종 구

<아동문학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숙이는 머리맡에 쌓인 선물 상자들을 또 헤어봤어요. 그리고는 큰 오빠한테 또 졸랐습니다.

“큰 오빠 뭐야, 아직도 선물을 안 주게.”

큰 오빠는 어제부터 자꾸 웃기만 하면서

“내 선물은 이미 줬는걸?”

하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빠가 선물을 줬어? 응?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미숙이는 다시 선물상자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옮겨 쌓으면서 큰 오빠가 준 선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것은 아빠가 사다 준 빨간 털구두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목이 긴 털구두를 아버지한테서 받았지요.

두번째 상자는 큰 언니가 손수 만들어 준 세타였습니다. 분홍색깔의 이 세타는 언니가 잘 때부터 미숙이가 봤기 때문에 큰 오빠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 상자는 엄마가 골라 준 크레파스였어요. 그리고 꼭 안에다 「성탄절에 엄마가」하고 파랑 불펜 글씨가 있으니 틀림없거든요?

네번째 상자는 작은 오빠가 어제 저녁에 들어오면서 사 온 동화책입니다. 색동종이에 곱게 포장해 온 조그만 크기의 동화집.

그리고 마지막 상자는 흑산도에서 영아가 소포로 보내온 조개집질 상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큰 오빠 선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카아드를 모조리 뒤져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큰 오빠 이름은 없거든요.

“큰 오빠, 나 놀리기야? 선물은 주지 않고 줬다고 시침일 배고. 씨, 미워 큰 오빠!”

큰 오빠는 성경·찬송을 챙기면서

“그것은 크리스마스 새벽에 알게 돼.”

하곤 교회로 가버리는게 아닙니까.

미숙이는 큰 오빠 말이 알송달송했습니다. 혹시 어디다 감추어 두었다 하고 책상 밑이며 잠봉 속을 뒤져 봤습니다. 전축 케이스 속도 들여다봤어요. 냉장고 속

도 열어 봤어요. 책장에도 새 책이 있나 하고 뱅 돌아 가면서 기웃거리려 봤어요. 보물창고를 할 때처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 봐도 없었어요.

꼭 책가방 크기만큼의 상자를 하나만 더 올리면 선물상자들의 키는 텔레비전 키와 같아져거든요. 그래서 큰 오빠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성탄절에 교회에서 상품을 타면 꼭 맞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는 예쁜 색깔들로 포장된 선물상자들을 보면서 요즈음은 고무동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에 열 번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열 번이 오면 미숙이 선물이 방안의 한 쪽 벽을 가득찰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뚱뚱거렸습니다.

미숙이는 요즈음 잠도 잘 오질 않았습니다. 선물 자랑할 친구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미숙이는 크리스마스가 하루밖에 남지 않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큰 오빠 선물을 받을 것과 또 하나는 교회에 가서 선물 자랑할 친구들을 만날 일이었어요. 미숙이는 하루가 참 긴 것 같았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은 교회 찬송 부르니  
그 소리 높도다  
그 소리 높도다  
그 소리 높도다.

크리스마스의 새벽이 왔습니다.

채 잠이 깨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찬양대의 새벽송이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아직 자니?”

“아아니? 선물 가져왔어?”

“그래, 예수님을 선물로 준다.”

“에게게, 이젠 성경책 아냐?”

큰 오빠는 조그맣고 예쁜 성경책 한 권을 미숙이 앞

크리스마스가 1년에 열 번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열 번이 오면, 미숙이 선물이 방안의 한 쪽 벽을 가득찰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뚱뚱거렸습니다.

“용이도 이런 선물 받았을까, 오빠?”

“물론이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거든.”

에 내어 놓았어요.

“성경책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하늘 나라도 있거든, 그게 다 미숙이가 갖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가져?”

“그걸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갖게 되는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받는거야.”

“난 예수님을 받지 않았는데……”

“아냐 벌써 받았지. 이 세상 어린이가 모두 받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2천 년 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축하하는 것 이란다.”

“그럼, 이런 상자 선물보다 더 좋단 말야?”

“그럼 좋지 않고. 이 선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영원한 선물이란다.”

미숙이는 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이다.

미숙이는 큰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얼굴에 장난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은 의젓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전도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의 표정 같았습니다.

미숙이는 다시 큰 오빠에게 다녔어요.

“오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그런 선물을 주신거지?”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거저 주셨단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소식을 전하고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미숙이는 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용이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도 이 질문에는 찔 찔매겠조.

“용이도 이런 선물 받았을까, 오빠?”

“물론이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거든.”

큰 오빠는 미숙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숙이는 텔레비전 곁에 쌓아 둔 선물과 방금 큰 오빠가 준 찰그만 성경책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큰 오빠의 얼굴 표정이 생각나 기운 앞으로 갔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거든.

큰 오빠의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꼭 같지 않았습니다.

미숙이는 혼자 웃다가 또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을지, 교회에 가서 석이랑 철이한테 예수님 선물 자랑을 해야지.

미숙이는 교회에서 받을 선물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려 놓은 카아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이렇게 파랑 크레파스로 눌러 쓰고는 생긋 웃었습니다.

학교 앞 토타리쥬에서 조용한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물린 밤

주의 부모 앞까지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

## 「뜻 있는 인물이 되라」

—목요회 70인전도대 성가대등의 활동—

신앙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마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한다. 중학생은 아직 미숙해서 일방적이기 쉽고 대학생은 저가 다 된 인간인양 자만에 빠지기 쉬우나 고등학생은 그 사이에 있어 양자의 일면을 가지면서도 그 시기 특유의 도전과 반응(challenge and response)을 통한 발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교회 고등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차대하다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충현교회 고등부는 소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 부장에 위영환 장로 · 지도에 정관일 목사

연혁을 보면 교회 설립 초 김창인 전도사가 지도하던 학생회가 1963년에 중·고등부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주교부는 1학년 12개 반, 2학년 11개 반, 3학년이 1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11과 3처, 부감, 부장이 제신다. 역대 부장의 면모를 보면 위영환, 조현명, 김기정, 김창배, 신계택, 오승률 장로를 거쳐 현재는 위영환 장로가 수고하시고 오늘의 고등부로 육성 발전시킨 역대 지도로는 조천일, 신에철, 한재호, 이정심, 이종윤, 신성종, 최성덕 등 제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정관일 목사가 전집을 다하고 계신다. 그 외에 총신 신학부의 김일동 전도사가 부지도로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면려부 조직으로는 회장과 부회장(여) 밑에 상임위원 및 각부 부장이 있는데 고등부에만 있는 특이한 부서로는 목요부라는 것이 있다. 이 목요부는 산하에 목요회를 두고 있는데 목요회란 각 학교별로 조직된 학원 전도 모임으로 현재 30여 군데 목요회가 조직되어 있다.

### 학원선교의 첨병—목요회

각 목요회는 매 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학원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학원 복음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부서요 활동이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는 각 학교 목요회 담당 교사제를 채택하여 지도하게 하며 부지도 전도사가 각 학교를 심방한다.

중요한 면려회 활동으로는 학생들의 신앙 수련을 위하여 1963년 여름부터 하기 수양회를, 1971년 겨울부터는 중등부와 합동으로 동기 수양회를 가진다.

또 「70인 전도대」가 있어 매월 세계 주에 노방전도를 나가

음의 빛」사(社) 발행 「성경의 파노라마」와 네비게이터 선교회(The Navigators) 발행 「그리스도인 생활의 연구」를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지적 발전을 위해서는 특강을 두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의 제 문제를 가지고 「교사 초청 좌담회」를 열고 있고 그 밖에 회지 「코이노니아」를 발간하고 있다.

### 성가대—저녁예배 성가 담당

또 고등부는 성가대의 활동이 큰데 70여명의 압도적인 대원수다 성가대의 수준도 높아 우리교회 저녁 예배 성가를 거의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이효은 집사를 지휘자로 맞아 11월에 제 1회 선교 음악 발표회를 열어 본당 3층까지 성향을 이루기도 하였다.

한편 고등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학 진학 문제인데 매년 11월이면 대입 예비고사 전에 학부모와 같이 준비 기도를 가지는데 이에 대한 부형들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졸업생 수의 9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에서 문제점이라면 전 진학생이 다 대학부에 적응을 두지 않고 약 1/3 정도는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다.

또한 33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정경환 수준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알찬 성경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매주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사 예비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부 교육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주일학교와는 달리 공과공부 교재를 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사들은 연구하며 교수하는 일에 하기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고등부의 자람이라고 하면 교사와 학생이 교역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게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고 내 친구와 내 가족을 구원하자」를 금년 표어로 삼은 고등부는 정관일 목사의 「뜻 있는 인물이 되라」는 비전 밑에서 3년간의 젊은 꿈을 신앙으로 키워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들 학생들이 아들과 어른의 중간기에 있어서 아주 델리키트한 면들이 없잖아 있다. 감성이 예민하여 조금만 잘못 인도하게 되면 그릇된 길로 빠질 염려도 있으며 특히 이성을 의식하는 시기여서 이들을 지도하는 때에는 노련성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가 있어도 자진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 교역자의 「저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에선 영적 감화력을 통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오늘날처럼 복잡다양하고 물질주의 기계문명이 팽배한 세상에서 교회라고 청소년의 문제가 없으면 법은 없으나 이처럼 신앙방법으로 젊은이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태용 기자>



<부장: 위영환 장로> 고 있으며 매 주 성경 통신 강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텍스트로는 「복

# 하나님의 종 에스겔

윤 영 탁 전도사

<본교회 전도사·총신 강사>

## <연재 순서>

1. 에스겔은 어떤 인물인가?
2. 시대적 배경과 소명
  - (1) 시대적 배경
  - (2) 포로된 자에게 보냄받은 에스겔
  - (3) 파숫군으로서의 에스겔
  - (4) 표징으로서의 에스겔
3. 에스겔 선지의 메시지

### (4) 표징으로서의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많은 표징(혹은 징조)을 보여주셨다. 그 표징들은 다음과 같다. 박석에 에루살렘성을 그리는 징조(겔 4:1-3),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며 좌우편으로 눕는 징조(겔 4:4-8),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징조(겔 4:9-17),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다는 징조(겔 5:1-4), 행구를 준비하고 이사하는 징조(겔 12:3) 그리고 아내를 잃었을 때 오히려 백성을 위해 슬퍼하는 징조(겔 24:15-16) 등등.

이와같이 적지않은 상징적행위를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는 다만 피동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할 수 없었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행하였든 이유는 이 표징들이 하나님의 계시(啓示)의 연장(延長)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상징적 행위를 일명 행동계시(行動啓示)라고도 부르게 된다. 이 표징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임박한 심판이 이러하다는 것을 자신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표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의 직책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에스겔 선지에게 “무엇을 하느냐?”(겔 12:9)”고 물으며 그의 행위의 일거일동에 관심을 두고 살피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생활전체가 그 소명에 함당하여야 된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는 이 상징적 행위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꼭 같은 태도로 행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경고하시지 않고 이와같은 표징까지 동원하시고 더욱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 보다 더 많이 보여주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이것은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며 간절히 경고하신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증(立證)해준다(렘 11:7; 7:13, 25; 25:3, 4; 29:19; 32:33참조). 유대인들의 끝에도 기록하기를 만일 제자들이 스승에게 “말씀 한 장(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러 이리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 들

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겔 3:22).” 하심으로 에스겔이 그곳에 이른즉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했다고 한것도 역시 이와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에스겔 선지의 성역 상반기에 보여준 이 표징들대로 그후 실제로 이루어져서 에루살렘성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더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는가를 잘 이해하게 된다. 이는 실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들이키고 살찌니라(겔 18:31-32).”고 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요 13:1 말씀이 문득 연상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3. 에스겔 선지의 메시지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겔 1:1-32:32이고 둘째는 겔 33:1-48:35이다. 에스겔 선지는 첫 부분에서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이같은 심판을 초래한 원인은 그들의 죄, 아니 더 엄밀히 지적해서 그들 개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20).”하신 말씀은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 중요성을 밝히준다. 이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는 조상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며 “주의 길은 공평치 않다(겔 18:25, 29).”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일축(一蹴)했던 것이다(겔 18장 참조).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의 경고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되며(겔 10:18), 에루살렘성은 함락되고 파괴되었다(주전 586년).

에루살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겔 33:21)은 에스겔 선지의 성역의 전환점을 이루게했다. 이제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된다. 마치 해골매와 같이 되어진 이스라엘 왕국이 용사의 큰 무리와 같이 영광스럽게 미래에 재건될 것을 약속해주며(겔 37장 참조), 그 때에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님이 되실 것을 보여준다(겔 36:21-31). 그곳은 참된 목자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겔 34:24 이하). 에스겔 선지가 환상(겔 40:1-48:35) 중에 본 세 에루살렘 성전에는 네댓던  
⇒ 7 페이지에 계속

# 새해 교회 임직원 일부 확정

## —두드러진 주일학교 부장 변동이 특징—

◇..... 1976년도 교회임직원 선임을 위한 당회가 11월로 들어서며 거의 매주마다 진지하게.....◇  
 ◇.....열리고 있다. 12월 7일 권사 및 서리집사 임명을 시발점으로 하여 14일에는 구역장 및.....◇  
 ◇.....권찰, 21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28일에는 성가대원 임명이 각각 3부 예배시간에 실시.....◇  
 ◇.....될 것이라고 한다. 중현 12월호에서는 사정상 새해 교회 임직원중 일부만을 발표하고.....◇  
 ◇.....전체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중현 1월호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 1. 당 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위영환  
 부서기 : 이태규

### 2. 제직회

회 장 : 김창인

### 3. 구역권찰회

회 장 : 백성룡

### 4. 전도부

부 장 : 김광철

### 5. 성가부

부 장 : 홍중섭

### 6.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 김광철

### 7. 재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 8.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 9. 등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명옥

### 10. 재단법인충현동산

이사장 : 김창인

전무이사 : 위영환

이사 : 김광철, 우성원

감사 : 한명옥, 김기정

### 11. 월간충현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위영환

### 12. 성경학원

원장 : 김창인

원감 : 신계택

### 13. 주일학교

① 새신자부

부장 : 김한홍 지도 : 정기성

② 영아부

부장 : 박창수 지도 : 정소영

### ③ 유치부

부장 : 조현명 지도 : 정연화

### ④ 유년부

부장 : 한경일 지도 : 이승근

### ⑤ 초등부

부장 : 김중식 지도 : 김태현

### ⑥ 중등부

부장 : 이용선 지도 : 윤형철

### ⑦ 고등부

부장 : 위영환 지도 : 이연호

### ⑧ 대학부

부장 : 최석주 지도 : 신성종

### ⑨ 청년부

부장 : 윤용규 지도 : 정관일

### ⑩ 장년부

부장 : 송순일 지도 : 김종택

### ⑪ 노년부

부장 : 윤종순 지도 : 김재창

## 감사절 행사 성료

### —은 교우들 감사헌금 드리고 고아원 방문·연극공연—

지난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올해는 특별히 다채로운 순서들을 진행하여 그 뜻을 깊게 새기었다.

은 교우들이 예년과 같이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정성껏 드렸고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등부에서는 학생들이 정성껏 모은 과일과 떡등을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학·고등·중등부 등 각부에서는 연극을 공연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저녁 예배시간에는 유치부 꼬마들이 은 교우들 앞에서 성가와 암송등 재롱의 순서로 감사절을 축하하였다.

### 충현을 빛낸 어린이들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충현의 어린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충현을 대외적으로 크게 빛내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전농교회에서 실시된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유·초등부 성가경연대회에서 초등부 합창부에서 우리교회 초등부가 1등, 중창부에서는 2등을 하는가 하면 10월 4일 충희신학대학에서 실시된

글짓기대회에서는 초등부의 홍경숙 어린이가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 겨울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겨울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6시30분~9시25분에 우리교회에서 열린다고 한다 (토요일은 오후 2시 30분~3시25분).

주일학교 1부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성탄축하 음악예배

1976년 성탄축하 음악예배가 올해도 4일간 열리게 된다. 오는 17일 중·고등부 성가대의 음악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21일에는 체일·여성 성가대, 24일에는 대학부 성가대, 25일에는 유·초등부 성가대가 각각 음악예배를 드리게 된다. 시간은 모두 저녁 7시부터 본당에서 열리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세만수 선교사에게 성탄축하 카아드와 선물을 보냈시다.

◎집수처 / 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

##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1976년도 단기수련회  
내 1월 5일부터 시작—

교인 전체를 교육과 훈련을 통한 복음의 재무장의 기회를 삼으며 나아가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실력 있는 교인들로 키우기 위한 교회 전체 단기수련회가 오는 1월 5일 교역자 및 장로수양회를 선두로 시작된다.

「전도와 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는 말씀을 주제성구로 하여 1월 17일까지 계속될 이번 수련회의 일정과 주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 및 장로수련회/1월 5일~7일 : 현대교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상, 교회 봉사자의 자세 외 4과목 ② 제직수련회/1월 8일~10일 : 신자와 사회생활, 구역운영 외 3과목 ③ 교사수련회/1월 13~16일 : 분반교수요령, 이상적인 교사상 외 3과목 ④ 성가부수련회/1월 13일~16일 : 연주법 찬송가학 외 1과목 ⑤ 평신도수련회/1월 13일~16일 : 신자와 가정생활, 신자와 직업 외 2과목 ⑥ 임원수련회/1월 17일 : 교회의 직무 외 2과목.

## 안드레회 첫 월례회

지난 11월 10일(월) 유년부실에서는 6월 안드레회가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 회원간의 의사교환, 회원의 교육등을 목적으로 월례회가 열렸다. 남녀 5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이날 모임은 먼저 김종택 목사의 「전도의 결과/요 4:31」라는 제목의 설교의 말씀이 있었고 교회의 전도사명, 총동원 전도운동, 안드레회 등을 위한 제목별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홍종만 목사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특별히 이날 감명 깊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새로이 예수를 믿게된 조성행씨의 신앙증언시간이었다. 이러한 모임은 앞으로 매월 1회씩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 □서울 및 지방교회에 알립니다□

그간 미약한 월간 「충현」지를 애독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신 서울 및 지방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율해와 같이 지방의 각 교회로 「충현」지를 발송하고자 하오니 현재 「충현」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교회는 새해에도 계속 보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는 교회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분포를 감안한 편집실 선정 교회 외에는 배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 보낼곳/판재 업서에 기록하여 교회주소 다음 반드시 「충현 편집실」이라고 명시한 것.

□ 기간/1975년 12월 31일까지.

## 1975년 교사총회 소집공고

- 일시/1975년 12월 27일 오후 6시
- 장소/본당 및 기타 부속건물
- 대상/충현교회 주일학교 1·Ⅱ부 교사 전원

1975년 12월 1일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 창 인

## 토막소식

\*지도자양성부 제 8기 45명에 대한 수료식이 지난 11월 30일 저녁예배 후에 거행되었다.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개척교회 연말 순회예배 및 사업성과 확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4일 시내 금원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29일 부흥회 인도차 출국하였던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대만과 일본을 거쳐 11월 21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구역권찰회는 오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구역예배를 선다.

\*해의복음선교회는 덴마크의 한스(Hans) 목사에게 신약성경 3권을 기증하였다.

\*교회 전도부는 지난 11월 9일 월례 노방전도주일을 맞아 오후 특별집회 후 퇴계도와 명동 일대에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제일성가대에서는 1976년도 남녀 대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우리교회 출석하고 있는 세례교인인 된다고 한다.

\*교육연구위원회는 1975년 조사연구 결과를 프린트하여 합본으로 낼 계획이다.

\*교회 전도부는 12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50분까지 아시아방송국(1570 킬로 사이클)을 통하여 방송전도를 시작한다. 「저녁은 곳을 향하여」라는 방송 제목으로 당회장인 김창인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주일학교 1부는 1975년도 진급 및 수습식을 오는 12월 28일 가진다고 한다.

\*영아부 11월 목요특강은 우리교회 신성종 목사가 담당하였다.

\*유치부는 지난 11월 9일 오후 유치부실에서 졸업반 학부형 초청 좌담회(학부형 22명, 교사 13명)를 열었다.

\*중등부는 11월 16일 반별 성가경연대회를 열었는데 3~8반이 우승  
\*고등부는 11월 23일 후반기총회를 열고 한형서군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등부는 지난 11월 16일 회지 코이노니아 17호 500부를 발행했다.

\*장년부는 11월 30일 Ⅱ부예배 후에 율영탁 전도사를 강사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예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열었다.

## 기자석

\*...「일찌기 크리스찬이라 할만 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었고 하면 내가 최초의 참 크리스찬이 되어 보리라」 키에르케고오르의 말이다. 이제 세모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다 볼 때 키에르케고오르의 결심은 아직도 저만치 있고 나는 애타게 손을 내밀고 있는 가련한 존재라 생각하니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그 모래알같이 많은 날들에 어찌 한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였을까 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였을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고산 준령에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출장내보내고 저 골짜기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던 말인가. 아무리 범인(凡人)이라 하지만 금년에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설악산 천불등 계곡만큼이나 심하였다. 봉(峯)과 봉 사이의 폭이 너무도 가까웠고 그 사이의 계곡은 너무도 깊었다. 성도의 성화과정에서 45°선의 유지가 키에르케고오르적 참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쯤이나 이뤄질 수 있는 소망일지? 1976년에 그것을 기대하고 결심하면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본다. (오)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바퀴 돌아 처음 출발하였던 지점으로 가까워오고 있다. 365일이라는 이 같은 지구의 공전(公轉) 주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한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새해를 기다리는 세모에 서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된다. 새해에는 좀더... 그러나 마치 지구의 공전 주기처럼 일년을 주기로하여 우리의 결심이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기도 한다. 변화가 없었다면 연륜대를 한결 더한 것 뿐이지만 그 연륜의 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우리시대의 연륜의 태가 모두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표)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월간「충현」편집실

## 편견하고 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은 동일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아주 다르게 느껴짐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마지막 가는 시간을 1분 1초 늘여서 투영해 보며 75년을 정리해 본다. 「그래, 정리, 정리가 필요하다.」 그때야 오는 해엔 순간속에서 영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또 맞는다. 아동문학가 박종구 선생님(신망애사 주간)의 동화를 보며 어린 시절

을 생각해 보자. 어릴 때 느끼던 성탄절의 그 정이로움과 기쁨을 과연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 켜보며 아기 예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자.

◇...충현의 온 식구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로 충현지가 이같이 성장, 발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지만 단 한번이라도 만드는 우리가 만족스럽게 내보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보다 나은 「충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의 많은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온 교우의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 아낌없는 조언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형)